

감성디자인으로 접근한 경관조명의 유형 분석

(Patterns Analysis of Outdoor Lighting by the Emotional Design)

박병철* · 최안섭**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oung-Chul Park · An-Seop Choi)

Abstract

The recognition of emotionality becomes so important that it is called 'emotional consumption society'. The emotional design, which is mostly concerned about user's consensus and experiences, is understood from a interactive point of view, human, and space. Today, the emotional design is a new paradigm.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hich presents patterns analysis of outdoor lighting by the emotional design, applies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emotional design in Analysis process of outdoor lighting patterns. Also, this paper shows examples at analysis proces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도시의 야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정부의 경관정책 수립, 법규마련, 심야 전력비용 할인 검토 등에 의해 공공건축물(관광서, 교량, 문화재 등)과 민간건축물(공동주택, 기업의 사옥 등)에서 야간경관조명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야간에 각종 이벤트, 스포츠, 쇼핑 등을 하는 기회가 많아져서 옥외조명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졌으며 이에따라 야간경관조명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야간경관조명에서 조명환경연출은 인간 감성이 부합된 다각적인 학문적지식을 갖고 목적에 적합한 환경연출을 해야한다[1].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학문분야에서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경관조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듯 건축물 경관조명분야에서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시켜야할 것인가?

야간경관조명은 경관조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교량, 기념물(Monument), 수목 등의 개성을 살려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창조하고 지역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랜드마크를 형성하는데 있으며, 지역 내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경관조명은 보는 사람이나 다른 오브제들 간의 관계(Context)에 대한 패턴 또는 공간성을 내재하고 있어

야 한다. 또한 빛이라는 수단으로 '지역기억의 원점'을 만들고 '장소의 영속성(永續性)'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2-4].

서울의 밤은 화려하다. 형형색색의 광고물과 밀집되어있는 고층빌딩들의 경관조명, 이러한 현황속에서 어떻게 야간경관조명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장소의 영속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건축물 경관조명의 유형을 인간의 감성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유형분석방법은 최근 경향(Trend)인 감성디자인의 개념과 그 표현기법을 적용하고 경관조명이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살펴보며 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감성디자인의 개념을 파악하고, 건축물 경관조명에 적용 가능한 표현기법을 채택하여 경관조명의 유형에 적용하였다. 또한 분류된 유형별로 사례를 첨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주된 연구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문헌조사,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유형 분석, 분석된 유형에 의한 사례적용이다. 상기 절차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경관조명에 대한 개념적 접근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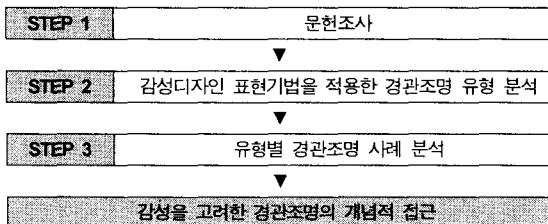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Fig. 1. A method and procedure of study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2. 감성디자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감성의 개념적 정의

감성이란 어느 누구나 그 의미를 느끼고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감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로 감수성이라고도 하며, 이성(理性)과 대립되는 말로 대상으로부터 감각되고 지각되어 표상(表象)을 형성하게 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일컫는다[5].

감성이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분(Mood)이나 감정(Feeling)이며, 나아가 사고(Thought)의 한 동적 양상이다. 좁은 뜻으로는 정서(Emotion)와 동의어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인지적인 내적상태(Non-cognitive internal states)를 모두 포함한다. 즉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어떤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 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이 때의 교감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성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6].

2.2 감성디자인의 대두

최근 인간의 감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감성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감성공학이란 인간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제품개발이나 환경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User)의 편리성, 쾌적함, 안락함을 도모하는 기술 분야이다.

공학적 측면이 아닌 디자인 측면에서 감성은 무엇인가? 감성디자인이란 이용자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개념의 중심에 인간의 '감성'을 위치시키고 디자인의 목표나 평가도 경제(Economy)원리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생태학(Ecology)적 가치척도로 적용한 것이

다. 이러한 감성디자인의 특성은 기능주의 시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한 하이테크(Hi-tech) 디자인과 상반되는 하이터치(Hi-touch)적 인 표현기법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하이터치는 인간성 회복과 인간 감성을 중요시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이터치적 표현에 있어 인간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그 자체가 기호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즐거운, 놀라운, 환상적인, 색다른 등의 감성 어휘를 설화적(Narrative)공간에 장면화(Scene)시키고 이를 공간의 흐름, 즉 연속성(Sequence)과 연결시킴으로써 현실세계를 탈피한 어메니티(Amenity)를 구현시키는 것이다[6].

3. 감성디자인으로 접근한 경관조명의 유형 분석

감성디자인의 개념은 이용자의 과거경험, 상상, 미래에 대한 꿈 등의 상징적 의미를 환경, 사물 등에 부여하여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게 하므로 이용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을 가진다[7]. 경관조명의 주된 목적도 랜드마크를 형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장소의 영속성'을 인식시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감성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 경관조명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경관조명에 적용 가능한 감성디자인의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조건반사적 체험, 공감각의 체험, 장면성과 연속성을 지닌 내리티브(Narrative) 구조, 사실적 스케일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다. 이러한 유형은 감성디자인 개념의 또 다른 해석에 의해 다르게 제시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경관조명은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조명을 설치한 빛환경을 의미함을 미리 밝혀두겠다.

3.1 시지각에 의한 조건반사적 체험

인간의 행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일종의 경향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각과 인지를 포함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행태의 근원은 환경의 지원성에 있으며 이는 환경 안의 인간의 행태를 위한 잠재적 환경을 구성한다[8]. 감성디자인에서는 인간행태와 심리를 사실적 결과에 대한 자료로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인간중심의 경험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장치를 통해 개인의 성향 혹은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한 일련의 행동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경관조명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시지각에 의한 조건반사적 체험의 경관조명 사례
Table 1. Examples of conditioned reflex

사례이미지	내용
 <Place Bellecour in Lyon>	광장내부와 광장주변 보행로를 메탈헬라이드 지중 매입등에 의하여 분리한 사례로 인간의 심리와 행태, 사회적 규범을 적용한 사례
 <서울 용산 Space 9 앞 광장>	광장내의 보행 축을 LED 지중 매입등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보행을 영향을 미치는 사례

3.2 공감각 체험

인간의 오감에는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심리적인 감각기관'과 미각, 후각과 같은 '화학적 감각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제각기 독립된 감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색, 냄, 소리, 맛, 향기 등이 감관(感官)을 자극할 때에 감관이 상호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한 현상을 공감각(共感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6]. 경관조명에서는 조명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이벤트의 개념으로 배경음악에 맞추어 조명연출이 변화하는, 이용자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연출 안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경관조명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공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조명 사례
Table 2. Examples of synesthesia

사례이미지	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페인광장에 미법의 분수(음악 분수)로 웅장한 클래식음악과 함께 분수 쇼가 그 리듬에 맞춰 물의 크기와 방향 빛이 동시에 변화하며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경관조명 연출
 <홍콩 섬 아경>	홍콩의 침사추이에서 바라본 홍콩 섬의 레이저쇼 각 건축물의 경관조명 연출 안이 변화하면서 레이저쇼와 음악이 어우러져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경관조명 연출

3.3 장면(Scene)성과 연속성(Sequence)을 지닌 내러티브(Narrative) 구조

감성디자인에서 장면성이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간에 있어 이용자들을 배우로 여겨 공간을 장면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속성이란 공간을 예로 들면 이용자가 공간을 경험할 때 매우 리드미컬하고 가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즐거운, 놀라운, 특별한, 환상적인, 색다른, 영감이 있는 등의 감성어휘들을 설화적(Narrative) 공간에 장면화 시키는 것이 감성디자인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6].

이러한 설화적 구조는 기승전결의 설명적 수법으로 공간디자인에 접목되는데, 경관조명에서는 건축물 경관조명에 영상을 이용하여 특별한 날(Day)이나 지역의 역사, 동화의 이미지 등을 투사하여 정보 혹은 이야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경관조명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내러티브 구조의 경관조명 사례
Table 3. Examples of narrative structure

사례이미지	내용
 <벨기에 브뤼셀 Grand Place>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랑 플라스(Grand Place) 앞 시청벽면에 일정 시각이 되면 시청벽면을 스크린 삼아 조명과 범프로젝터로 영상을 만들어 벨기에의 역사적 내용과 특별한 날(Day) 등을 주제로 서술적인 경관조명 연출

3.4 사실적 스케일로부터의 탈피

엄격한 기능주의적 가치관과 조형관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삶, 특히 대중적 관점의 해석은 사용자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내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7]. 경관조명에서 기능주의적 연출은 무엇인가? 야간에 건축

물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단순히 업라이트를 하여 그 구조미를 살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을 기능주의적 경관조명이라 할 수 있다면, 경관조명 연출에 의해서 주간에 갖던 이미지와 다르게 비워 내거나 다른 형상을 연출하여 전형적인 비례나 사실적 스케일 등에서 벗어나 주야간 이미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을 사실적 스케일로부터 탈피한 경관조명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마파크 연출기법에서 볼 수 있듯이 해저의 세계를 하늘에 표현하거나 실내에 금을 구현해 저의 세계를 하늘에 표현하거나 실내에 금을 구현해 둑이 환상적이고 특이한 감성적 어휘를 빛 환경에 부여했을 때도 사실적 스케일로부터 탈피한 경관조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관조명의 연출은 이용자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하여금 색다른 느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경관조명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사실적 스케일로부터 탈피한 경관조명 사례
Table 4. Off-centered examples of a realistic scale

사례이미지	내용
	<p>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의 아케이드에 펼쳐지는 전자쇼</p> <p>210만여 개의 전구에 의해 보여지는 이미지는 208개의 스피커를 통해 공감각적이면서도 사실적 스케일에서 벗어난 감각적인 조명 연출로</p> <p><Arcade of Fremont Street in Las vegas></p>
	<p>주간에 안정적인 대칭구조의 건축물을 야간에 한쪽을 비워냄으로 하부 구조를 시각적으로 악화함으로써 주야간의 이미지가 보는 이로 하여금 비슷하지만 색다른 경험을 연출</p> <p><Rio Hotel in Las vegas></p>

4. 결언 및 향후연구

갈수록 높아지는 이용자(User)의 욕구가 기능, 효율 그리고 편의성의 극대화로 심리적인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각각에 따라 인간의 감성적 측면이 오늘날 주요한 경향이 되었다. 이렇듯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감성디자인에 대한 여러 학문분야의 관심과 연구 안에서 경관조명과 감성디자인을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감성디자인의 표현기법을 경관조명에 적용하여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유형별로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 부연 설명하였다.

- (1) 시지각에 의한 조건반사적 체험
- (2) 공감각(共感覺) 체험
- (3) 장면(Scene) 성과 연속성(Sequence)을 지닌 내리 티브(Narrative) 구조
- (4) 사실적 스케일로부터의 탈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디자이너나 감성디자인의 또 다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관조명 디자인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는 감성디자인의 표현기법을 도입한 경관조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용자의 감성과 건축물 경관조명 디자인이 상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이용자의 감성 충족’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적응하고자 함이다.

참 고 문 헌

- (1) 이미애, 서울시 건축상 야간경관조명부문의 작품을 특집으로 내면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 16권 3호, 2002.6
- (2) 이상우,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가양대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 16권 3호, 2002.6
- (3) 조성오 외, 조명 디자인 이야기, 동서문화원, 2004
- (4) 니카지마 다쓰오키 외, 조명디자인 입문, 예경, 1997
- (5)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편집국, 2006.1
- (6) 권영경,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10
- (7) 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6
- (8) 임승빈,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화사, 1999 제판